

—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2016

2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 頂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시간이 지나는 자리(50x50) • 이가은

* 이가은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현대미술전공
 불교의 불이(不二)사상을 화폭에 담아내는 화가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2016 / 2

다시 읽는 산방한담	04	아직 끝나지 않은 출가
처음 마음으로	10	애욕과 애착
알립니다	15	2016년 '맑고 향기롭게·길상화 장학생' 안내
아버지와 함께한 하루	16	장인정신
따뜻한 이야기	20	공병우 박사를 아시나요?
법정스님 책 속의 책	22	성장을 멈춰라
옛날의 금잔디	24	미역국과 낙지국
숨어서 피는 꽃	28	상대방 입장이 되자
문현철의 병영갈림	32	베토벤과 아인슈타인의 선물
운명보다 강한 열정	34	헬렌 켈러의 사흘간의 소망
사찰의 숲을 거닐다	36	난대수종의 전시장 달마산 미황사
공감으로 소통하실래요	41	느낌만 말하기
맑고 향기롭게 활동소식	44	중앙모임 소식 / 지역모임 소식
길상사 소식	50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6년 2월 1일 발행 / 통권 252호 / 등록번호 라08708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 발행인 및 편집인 이상조 / 편집장 홍정근 / 편집위원 엄현경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부산모임 : (051)898-2672~3 / 경남모임 : (055)266-0710 / 광주모임 : (062)236-3129 / 대구모임 : (053)753-8883
<http://www.clean94.or.kr> / E-mail :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 E-mail : kilsangsa@hanmail.net

아직 끝나지 않은 출가

글·법 정(法 頂)

나는 아마 전생에도 출가 수행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직관적인 인식만이 아니라 금생에 내가 익히면서 받아들이는 일들로 미루어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면 누구나 그랬듯이, 한 핏줄 한 형제끼리 총부리를 마주대고 미쳐 날뛰던 동족상잔인 6·25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인간존재에 대한 물음 앞에 마주서지 않을 수 없었다. 사상과 이념이 무엇이기에 같은 형제와 겨레끼리 물고 뜯으며 피를 흘려야 하는지 어린 나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학창 시절에 밤을 새워가면서 묻고 또 물으면서 고뇌와 방황의 한 시절을 보냈다.

나는 한반도의 서남단 해남에서 태어나 목포의 유달산 자락에서 꿈 많은 출가를 결심하고 싸락눈이 내리는 어느 날 집을 나왔다.

집을 나온 그때의 심경은 그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인이 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봉익동 대각사에서 만난 월정사의 한 스님 말이 며칠 전에 내린 폭설로 교통이 두절되어 한동안은 갈 수 없을 거라고 했다.

아는 스님의 소개로 안국동에 있는 선학원에서 효봉 선사를 친견하고 출가의 결심을 말씀드렸다. 내 얼굴을 살펴보고 생년월일을 묻더니 그 자리에서 쾌히 승낙을 하셨다. 그 날로 조실방에서 삭발, 먹물옷으로 갈아입고 선사께 인사를 드리자 선 뜻 알아보지 못했다. 곁에서 누군가

방금 삭발하고 옷 갈아입은 행자라고 말씀드리니 “허허, 구참(舊參) 같구나!”라고 하셨다. 구참이란 오래된 중이란 뜻이다.

삭발하고 먹물옷으로 갈아입고 나니 뿔뿔 날 듯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 나는 그 길로 밖에 나가 종로통을 한 바퀴 돌았다.

그 무렵 한국 불교계는 교단정화 운동이 시작되어 어수선했다. 나는 효봉 선사의 거처인 통영 미래사(彌來寺)로 내려가 하루에 나무 두 짐씩을 해다가 아궁이마다 군불을 지피는 소임을 보면서 늘 배가 고팠던 행자 시절을 보냈다.

한번은 절 우물을 고치기 위해 필요한 시멘트를 운반하는데, 통영 시내에서 겹도 없이 시멘트 두 포를 지게에 지고 용화사까지는 무난히 왔는데 재를 넘기 위해 오르막길을 오르려고 하니 걸음이 때어지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한 포씩 저날랐다. 내 생애에서 처음으로 젖은 짐 중에서 가장 무거웠던 짐이다.

여름 안기가 끝난 7월 보름 해제날에 계를 받고 중이 되었다. 그 이튿날 선사를 따라 지리산 쌍계사 탑전으로 옮겨갔다. 여기에서 1년 남짓 착실하고 빈틈없고 엄격하고 아주 조심스러웠던 ‘뫄중 시절’을 보냈다.

나는 이 시절을 두고두고 감사한다. 무슨 일이나 처음 먹은 마음과 시작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몸소 겪어 터득할 수 있었다. 그 때 여럿 속에 섞여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그렇게령지냈다면 어떻게 됐을까. 돌아켜보면 아찔해진다. 출가란 살던 집에서 몸만 떠나온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순간순간, 하루하루 새롭게 시작하고 익히면서 거듭거듭 태어남으로써 새로운 삶을 이룰 때 ‘집착과 갈등의 집’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출가수행의 길에는 눈밝은 스승과 어진 도반(道伴)의 영향이 절대적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배우고 익힌 대로 풀리기 때문이다.

해인사 선원(禪院)에서 좌선을 익히고 강원(講院)에서 불교의 경전을 대

하면서 한국 불교의 현실 앞에 적잖은 갈등과 회의를 지니지 않을 수 없었다. 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망각한 채 전통과 타성에 젖어 지극히 관념적이고 형식적이며 맹목적인 이런 수도 생활에 선뜻 용해되고 싶지 않았다.

아침 저녁으로 장경각(藏經閣)에서 따로 예불을 드리면서 나 자신을 응시하는 일에 힘을 기울였다. 그런 해인사 시절 내 의식의 형성에 영향을 끼친 두 가지 일이 있었다. 그때 선원의 조실 스님으로 금봉(鍾峰) 선사에게셨는데 함께 조실방에 들어간 도반과 선사의 문답을 곁에서 듣다가 나는 번쩍 귀가 뜨이고 제정신이 돌아왔다.

도반이 조실 스님께 여쭙었다.

“저는 본래면목(本來面目) 화두(話頭)를 하는데 의문이 가지 않아 공부 가 잘 안됩니다.”

본래면목이란 부모에게서 낳기 이전 본래의 내 모습은 무엇이나는 의문이다. 화두란 참선할 때 끝없이 추구하는 명제다. 이 말을 들은 선사는 즉석에서 다그쳤다.

“본래면목은 그만두고 지금 당장의 그대 면목은 어떤 것인가?”

이 법문을 곁에서 듣고 섬광처럼 부딪혀온 그때의 전율을 같은 감흥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나는 더 물을 길이 없었다. 이때부터 좌선하는 일에 재미가 나서 무료하지 않았다. 잔잔한 기쁨으로 맑은 정신을 지닐 수 있었다.

또 한 가지 일은 방선(放禪) 시간에 법당 둘레에 거닐고 있었는데, 시골에서 온 듯한 아주머니 한 분이 장경각에서 내려오면서 나를 보더니 불쑥 팔만대장경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방금 보고 내려오지 않았느냐고 하자. “아, 그 빨래판 같은 것이요?”라고 되물었다. ‘빨래판 같은 것’이라는 이 말이 내 가슴에 화살처럼 꽂혔다.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알아볼 수 없는 글자로 남아 있는 한 그것은 한낱 빨래판 같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때 받은 충격으로 그해 여름 안거를 마치고 나는 강원으로 내려가

경전을 배우고 익혔다. 국보요, 법보라고 해서 귀하게 모시는 대장경판이지만, 그 뜻이 일반에게 전달되지 않을 때는 한낱 빨래판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나를 끝없이 부추겼다. 어떻게 하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쉬운 말과 글로 옮겨 전할 것인가. 이것이 그때 내게 주어진 한 과제였다.

그 몇 해 뒤 통도사에 계신 운허(耘虛) 스님에게서 한 통의 서찰이 왔다. 자금을 덜 시주가 나타나 숙원이던 불교사전을 만들까 하는데 통도사에 와서 편찬일을 도와줄 수 없겠느냐는 사연이었다. 기꺼이 동참했다. 1960년 초봄부터 이듬해 여름 사전이 될 때까지 편찬일을 거들었다. 이 기간에 4·19 혁명과 5·16 쿠데타를 겪었다.

이때 운허 스님과 맺은 인연으로 해서 원고지 칸을 메우는 업이 지속되었다. 동국역경원을 개설, 그 초창기의 작업으로 산을 떠나 서울 봉은사에 머물면서 군사독재의 격동기를 맞이했다. 장준하 선생과 함석헌 선생을 가까이 하면서 민주수호국민협

의회와 유신철폐 개헌서명운동에 참여하였다.

어용화된 불교종단에서는 이런 나를 마치 무슨 보군자처럼 취급하였다. 기관원이 절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감시하고 걸핏하면 연행해가 괴롭혔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군사독재의 당사자들에 대한 적개심과 중요심을 품게 되니 마음이 편치 않았다.

1975년이던가, 이른바 인혁당(人革黨) 사건으로 한 무리의 반정부 세력이 구속되어 재판에 회부되었다. 반체제 쪽에서는 이를 정치적인 조작극이라고 몰아붙이자 군사독재자들은 사형을 언도한 바로 그 다음날 여덟명 전원을 사형집행하고 말았다. 사법사상 일찍이 그 유래가 없었던 이런 만행 앞에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죄 없는 그들을 우리가 죽인 거나 다름이 없다고 나는 자책했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독재자들에게 조작극이라고 그들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자 보란 듯이 재빨리 사형을 집행하고 만 것이다.

생때같은 젊은이들을 하루아침에 죽게 한 이와 같은 반체제운동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곰곰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명색이 출가 수행자로서 마음에 적개심과 증오심을 품는다는 일 또한 자책이 되었다. 무슨 운동이든지 개인의 인격형성의 길과 이어지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 내가 무엇 때문에 출가 수행자가 되었는지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내 그릇과 삶의 몫이 무엇인가도 다시 헤아리게 되었다.

1975년 10월 거둬 털고 일어서는 출가의 각오로 미련 없이 서울을 등지고 산으로 돌아왔다. 한동안 소홀했던 '중 노릇'을 다시 익히고 길들였다. 그때의 내 심경은 이웃에 불이 났을 때는 소방관이고 누구고 할 것 없이 모두 나와서 급한 불을 꺼야 한다. 하지만 일단 불이 잡힌 다음에는 각자의 원위치로 돌아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몫을 다해야 할 거라

는 생각이었다.

조계산에 들어와 다시 중 노릇을 익히면서 산 지 어느덧 15년,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를 지켜보면서 눈을 맑히고 숨결을 고르게 한 세월이었다. 안이해지려는 일상의 타성에서 벗어나 내 삶을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 재출가의 의지로 지난해 겨울 나는 인도와 동남아 일대를 다니면서 여러 종교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았다.

그때 한결같이 생각한 과제는 '종교의 본질이란 과연 무엇인가였다. 힌두교, 자이나교, 불교 혹은 유대교와 기독교, 회교 등 이 지구상의 모든 종교가 한결같이 부르짖고 있는 것은 사랑이요 자비다. 그러면서도 그들 자신부터 종파적인 편견에 사로잡혀 싸움과 증오와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랑과 자비는 종교만의 전유물일 수 없다. 믿건 믿지 않건 간에 구체적인 일상의 이웃과 대인관계 속에서 인간의 가장 부드럽고 따뜻하고 향기로운 마음씨가 교류될 때 세상은 비

로소 살아갈 만한 세상이 될 것이다. 진짜와 사이비의 갈림길은 자기중심적인 독선과 편견에서 벗어나 사랑과 자비를 일상에 실현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달린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사랑이 곧 하느님이고, 자비심이 곧 부처요 보살이기 때문이다. 자비야말로 지성의 가장 궁극적인 모습이 아니겠는가 싶다.

지난 여름 파리에 사는 화가 방혜자 씨가 가족들과 함께 내 산거에 들렀다. 그때 함께 온 일행 중에 스위스에 사는 철학자 한 분이 후박나무 아래서 무슨 이야기 끝에 내게 이런 질문을 했다. "스님이 혼자서 이런 산

중에 사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했다. "내가 산중에서 사는 일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아직까지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어떤 틀에도 간섭이 없이 그저 내 식대로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따금 지나가는 사람들이 내가 사는 모습을 보고 좋아하는 걸 보면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모양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눈이 내리려는지 잔뜩 찌푸린 날 씨에 바람끝이 차다. 부엌에 들어가 군불을 한아름 지펴야겠다. 1991

- 버리고 떠나기 중에서

길상사 불교입문 32기 개강 안내

- 개 강 일 : 2016년 3월 9일(수)
- 시 간 : 매주 수요일(총12강)
- 주 간 반 : 오후 1시 40분 ~ 3시 50분
- 야 간 반 : 저녁 7시 30분 ~ 9시 40분
- 수 강 료 : 7만원(교재비 포함)
- 접수기간 : 2016년 3월 6일(일)까지
- 문 의 : 길상사 불교대학 02-3672-0036

애욕과 애착

글 • 덕 운(德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끝없이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삽니다. 그 무엇이든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재물(財物)과 이성(異性)일 것입니다. 재물과 이성, 이것은 오욕락을 대표해서 하는 말입니다. 오욕이란 성욕, 식욕, 수면욕, 재욕, 명예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재색(財色)이라 함은 오욕 전체를 지칭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물과 색(色)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돈과 이성(異性)이 바로 사람을 즐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려 하고 또 돈을 마음대로 써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돈

을 모으고 돈을 쓰는 재미는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호주머니에 돈이 두둑하게 있으면 안심이 되고 신바람이 납니다. 그리고 모든 거래가 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지어는 “돈으로 안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까지 이야기합니다. 실로 세속 법은 돈이 중심이 되어 굴러가기 때문에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외제 자가용도 살 수 있고, 사람을 마음대로 부릴 수도 있습니다. 이토록 재물이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것이 크면 클수록 나쁜 것도 크게 다가오는 것이 세속법의 원리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폐기판

신하는 것도 대부분 돈 때문에 발생 합니다. 칼을 생명처럼 여기는 무사가 칼에 맞아 최후를 맞이하듯이, 돈을 무기로 삼아 휘두르는 사람은 결국 돈에 의해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옛사람들은 아침마다 돈 금고를 향해 절하면서 말하기를 “돈님, 돈님! 나갈 때는 사람을 상하게 하지 말고 나가시오, 사람을 상하게 하지 말고 조용히 나가주십시오.”하고 기원했다고 합니다. 마땅히 도(道)로써 해결해야 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 하거나, 꼭 써야 할 곳에 돈을 쓰지 않으면 오히려 돈이 사람을 상하게 만든 다음 떠나는 것입니다.

또 이성(異性)은 돈 이상으로 사람을 즐겁고 흐뭇하게 만듭니다. 마음에 드는 이성과 만나 교제하고 이성과 사랑을 나누는 일은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던 이성을 얻으면 마치 천하를 모두 얻은 듯이 기뻐합니다. 진정 마음 맞

는 이성과 만나 따뜻한 정을 나누며 백년해로하게 되면 것처럼 행복한 삶도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시집 한번 잘못 가고 장가 한번 잘못 가면 그토록 힘든 삶도 찾아보기 어렵게 됩니다.

서로 의심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근심 걱정하다가 한평생을 허비하는 철천지원수가 되고 맙니다. 재물과 색을 잘 쓰고 좋은 인연으로 만나면 더없이 좋은 것이지만, 잘못 쓰고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는 재색(財色)처럼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것도 없습니다.

재색의 먹구름이 ‘나’를 감싸면 세상은 일순간에 암흑천지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 몸은 그대로 근심 걱정의 보따리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 아니면 물질 때문에 괴로워하는 인생, 만일 돈 걱정과 이성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이 세상은 살아가기가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그럼 인생의 기쁨인 돈과 이성이

무엇 때문에 사람들의 근심 걱정거리로 바뀌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내 것'이라는 애착이 기쁨을 괴로움으로 탈바꿈시켜 버립니다. 서로 호감을 가진 이성이 처음 만나서 교제를 시작할 때는 상대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온갖 정성을 다 쏟다가, 막상 시집가고 장가를 가면 서로를 자기 소유물처럼 여깁니다.

“내 아내는 내 것이다.” “내 남편은 나만의 것이다.”

이렇게 서로를 '나의 것'으로 고집하기 때문에 상대가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맞지 않게 말하거나 행동하면 화를 내고, 토라지고, 신경질, 고함, 눈물, 심지어는 주먹다짐까지 오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이 떨어지면 바람을 피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갈라서기까지 합니다.

어찌 아내가 '나의 것'이며 남편이 '나의 것'이었습니까?

원래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삼아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기 때문에 비극으로 끝맺음하는 것입니다. 재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쓸 줄 모르기 때문에 불행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욕과 애착 때문에 근심이 생기고

애욕과 애착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다.

애욕과 애착을 모두 다 버리면

근심할 것도 두려울 것도 없으라.

애욕과 애착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나의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만일 지금의 '내가' 재물과 이성 때문에 근심하고 있다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지나친 애욕과 애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사랑은 인연의 모임이요, 재물은 주인을 찾아 흘러가는 것입니다.

인연이 다하면 사랑은 흘러지고, 재물도 다른 주인을 찾아 흘러갑니다. 영원한 '나의 것'은 없습니다. 인

연 따라 왔다가 인연이 다하면 떠나는 것에 지나친 애착을 가지면 괴로움만 커질 뿐입니다.

오히려 돈이 나에게 찾아 왔을 때 욕심부리지 말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사랑의 인연이 맺어졌을 때 상대방을 존중하고 더 배려하면 서로를 살리고 더 좋은 인연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을 보거든 호랑이나 뱀을 보는 듯이 하고, 이 몸에 금과 옥이 따르거든 나무와 돌을 보듯이 하라.”

곧 부처님의 말씀은 이성에 대한 애욕과 재물에 대한 애착이 도 닦는 것을 방해하므로 애착심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심해져야 하고, 무심해지기 위해서는 안과 밖을 한결같이 해야 합니다.

수행하는 사람은 스스로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 양심을 자기가 지키고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행

동할 때 도(道)의 문이 열려가는 것입니다.

도를 닦는 사람들이 걸으려는 청정한 체하면서 재욕, 색욕, 식욕, 명예욕을 탐한다면 결코 도와 결합할 수가 없습니다. 수행하는 사람의 본분은 마음을 다른 데 두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수행하며, 애착 없는 진솔한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현의 가피를 입고 선신들의 보호를 받아 도를 원만히 성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도는 머리를 꺾고, 잿빛 승복을 입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경계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의 성품 자리를 지키며 순간순간 깨어 있는 것이 그대로 도를 닦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대로가 도량입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그 어지러움에 물들지 않고 자기의 본성 자리를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진흙탕 속에서도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우리도 이 오탁악세 속에서도 본

정신을 잃지 않고 청정한 마음을 꽃 피울 때 이 세상도 그대로 불국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5년 가까이 몸담았던 길상사의 주지 소임을 내려놓고 떠나는 날입니다. 제가 처음 소임을 맡았을 때 조금 어수선했던 도량이 여기 계신 신도분들의 도움으로 많이 정비되고, 불사(佛事)도 원만히 회향되고, 도량 분위기가 많이 안정된 것 같습니다. 일부 신도들과 사소한 마찰도 있었지만, 생각해보면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아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간의 허물은 모두 제가 지고 떠납니다.

길상사는 법정 스님과 길상화 보살님의 숭고한 무소유 정신이 살아 있는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입니다. 이러한 창건 정신을 우리 모두는 지켜나가야 합니다.

길상사는 어느 개인의 욕심으로 운영될 수도 없고 운영되어서도 안 됩니다. 길상사는 대한민국 모든 불

자들이 지켜보는 사찰입니다. 불교의 마지막 보루 같은 곳입니다.

여기 계신 길상사 신도분들과 맑고 향기롭게 회원 모두가 길상사를 지키는 수호신장이 되어서, 일부 사견을 가진 사람들이 범하지 못하도록 이 도량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주지 스님으로 덕일 스님을 모셨으니, 새로 오신 주지 스님을 중심으로 모든 신도분들이 합심하여 길상사가 더욱 평화롭고 길상스런 도량이 될 수 있도록 잘 가꾸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 길상사를 위해 봉사해주시고 가꾸어주신 모든 신도분들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의 행복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 불기 2559년 12월 초하루 법문
(2016년 1월 10일)

2016년

‘맑고 향기롭게·길상화 장학생’ 추천받습니다.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16년 ‘맑고 향기롭게 길상화 장학생’을 추천 받습니다.

창립 이후 23년째(2015년까지 총 553명/총지급액 : 약 8억여 원) 매년 선발하고 있는 ‘맑고 향기롭게·길상화 장학생’은 뛰어난 성적이 아니라도 성실하고 밝은 심성을 가진 일반고 학생과 한국 과학기술영재 발굴을 위한 목적으로 과학고 학생을 추천받습니다.

- 장학 대상 : 일반고, 과학고 학생 (50명 내외)
- 장학 기간 : 1년 (분기마다 각 학교 장학금 통장으로 입금됨)
- 장학 내용 : 학비 전액
- 추천자 : 회원, 지부 사무국, 현직 교사, 사회복지사에 한함
- 구비서류
 - ①추천서
 - 추천서는 2월 11일부터 본모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추천자 성명, 학생 정보 외 추천 사유
 - 학교 장학, 행정 담당자의 확인 기재
 - ②학생 서류
 - 가족관계부,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통
 - 성적증명서(신입생의 경우 중학교 3학년 성적증명서)
- 접수 마감 : 2016년 3월 18일(금) 우표 소인까지
- 선정 발표 : 2016년 4월 5일(화) 개별 통지 및 학교로 연락
- 문의처 : 02)741-4696(총무팀)

-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자세한 내용은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www.clean94.or.kr) 공지 참조
- * 장학금 후원계좌 : 외환은행 141-22-01683-9 / 맑고 향기롭게



장인정신

글 • 김광석(법학 교수)

70년대, 고향인 시골 풍경은 가을 농번기를 마치고 한가한 한때를 삼삼 오오 모여서 함께 보냈다. 겨우살이를 하기 위해 마루 밑에 굴을 파서 고구마랑 무 그리고 감자 등을 보관하여 출출할 때면 간식거리로, 땃거리가 어중간할 때는 끼니로도 대신하였다. 먹을 것이 넉넉하지 못한 시절이라 동네의 어른들은 상포계를 묻어다 같이 힘을 모아서 같이 먹고 같이 일하는 공동생활에 가까운 농경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우리 집은 할머니와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딸 여섯에 아들 둘인 팔남매의 대가족이었다. 집은 시골치고는 꽤 넓은 평수의 큰 집이었지만 방은 세 칸밖에 없었다. 말이 세 칸이지 실

제로는 두 칸에 불과했다. 이를테면 한 칸은 가마니들이 들어가 있어 일이 없는 농한기 철엔 늘 어머니 아버지가 가마니를 짜는 방이어서 실제로는 두 칸에 열한 명이 사는 것이었다.

남들보다 많지 않은 전답이라서 그렇게 넉넉한 살림은 못되었으나 그렇다고 찌들 정도의 곤란한 살림도 아니었다. 그나마 현금 수입원으로 바닷가에 나가 잡은 조개와 생선들이 있어서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한 노동의 대가로 한해를 살 수 있었다. 때문에 딸들과 어머니는 하루도 쉴 새가 없었다. 어머니는 심지어 동생을 낳은 당일에도 산후조리는커녕 차디찬 바다로 조개잡이를 나가기도 했다.

아버지는 무엇을 해도 남보다 뛰어났다. 돼지를 꽤 많이 키웠는데 우리 집 돼지는 동네에서도 소문날 정도로 정갈하고 푹푹해서 비싸게 팔려나갔다. 서산에 해가 지고 밥상을 물리고 나면 호롱불 밑에서 누님들과 어머니 아버지는 손에 피가 날 정도로 새끼를 꼬는 것이 일과였고 어느 정도 새끼가 쌓이면 작은 방에 자리한 가마니들 앞에 앉아 가마니를 짜느라고 한시도 쉬지 않았다. 이렇게 짠 가마니는 동네에서도 최고의 인기였고 만들기가 바쁘게 팔려나갔다. 꼼꼼하고 튼튼하게 짠 아버지의 가마니는 시골에서 최고급의 명품가마니였다.

이렇듯 아버지의 손이 닿은 모든 것이 남달리 인기를 누렸던 것은 다름 아닌 성실한 아버지의 사교가 그 원천이었다. 다시 말해 알뜰한 상술로 돈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이 아닌, 장인정신의 혼이 깃든 돼지를 키웠고, 양심을 한 줄 두 줄 엮어서 가마니를 짰던 것이 남다른 인기를 누

렸던 원인이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사회는 어떠한가. 돈을 버는 일이라면 서로 앞을 다투어 뛰어들고 도덕과 양심은 어느 강아지가 물어갔는지 눈 씻고 찾아보기 어려운 사회다. 돈이라면 부모·형제, 이웃과 친구, 남녀노소 구분 없이 무조건적이다. 이것이 신자유주의라는 그럴듯한 이론으로 포장돼 사람의 양심과 도덕과 윤리마저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돈이 신이 된 이 사회는 곳곳에 돈신(神)들이 자리하고 있다. 종교지도자가 그러하고, 정치가는 당연한 얘기처럼 여겨지고, 후세의 꿈을 키운다는 교육자도 예외는 아니며, 소위 말하는 사회 지도자들도 그러하며 기업가 또는 상도덕은 온데간데없고 이윤추구에만 급급하다. 이런 사회에서는 인간의 존엄성보다 돈의 존엄을 헌법에 규정해야 할 만큼 돈만이 사람 행세를 한다. 물질이 넘치고 양심이 사라지는 사회가 지금의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이다.

어릴 적 마루 밑 굴에 기어들어가
 감자나 고구마를 꺼내서 허기를 달래
 던 그 시절은 성인병에 걸리는 사람
 이 없었다. 또 다이어트를 한다고 아
 침 저녁으로 러닝머신에 매달려 땀을
 흘리는 사람도 없었고, 누구나 들고
 다니는 명품 가방도 모자라 상도덕을
 무시한 짝퉁 명품이 판치는 풍조도
 없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넘
 치는 정보화 사회로, 인간의 지혜는
 들어설 자리를 잃어가고 알뜰한 상술
 과 비도덕적인 지식만이 번드레하게
 걸 포장된 텅 빈 깡통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구멍 뚫린 양말을 호롱불
 밑에서 기워 신을 필요도 없고 형의
 옷을 아우가 물려 입을 필요도 없다.
 자연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자리 잡은 농약 천국 골프장에서 형
 형색색 서양 명품 옷을 입고 희희낙
 락 라이엇을 외치는 것만이 사람답게
 사는 것처럼 착각에 빠질 필요도 없
 는 그 시절을 나는 잊지 못한다.

이렇게 넉넉한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의 행복지수도 비례해서 늘어

난다면 굳이 마다하지 않겠다. 아무
 리 많이 가진 사람이라도 저세상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간다. 모래 한 알 손
 에 넣지 못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이
 자리에 내려놓고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 나는 어쩌면 경제적으로는 세
 상에서 가장 가난할지도 모른다. 이
 것은 현시대에 걸맞지 않을지도 모른
 다. 그러나 마음만은 이 세상 누구보
 다 복되고 행복한 세상을 누리며 산
 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늘 주위에 행
 복의 씨앗을 건네며 살려고 마음 쓰
 며 산다. 이것은 아버지의 교육철학
 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남 흉내 내
 기를 과감히 거부하면 나만의 사고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가장 나답게
 살려고 하루하루 일일신우일신(日
 新又日新)*의 신념으로 순간을 산다.

금면하고 성실하고 원칙이 분명한
 시골 농사꾼인 아버지는 깡마른 체
 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버릴 것이 없
 었다. 말수 또한 극히 적어 늘 과묵하
 고 고지식한 시골 노인이었다. 나보다
 도 남에게 폐를 끼칠까 노심초사하
 신 아버지였다.

나는 이 시대의 지도자라면 몇 만
 불의 국민소득에 목표를 두어 돈의
 전쟁으로 국민을 몰아넣는 정책보다,
 어린 시절 없어도 행복했던 그 시절
 을 교훈 삼아 만족하고 살며 근면 성
 실하게 아끼고 절약하여서 나보다 내
 이웃을 생각하는 배려의 정신이 국민
 들 속에 뿌리내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다. 주입식 교육을 기초로 한 성적평
 가로 가늠하는 기본 교육정책은 더불
 어 사는 사회보다 경쟁사회를 부추기
 며 인간의 존엄성보다 물질만능주의
 를 부추기는 원흉이 되고 말 것이다.

나는 아버지의 대화를 통해 이런
 사회를 과감하게 배척하고 산다. 아
 버지의 그 모습을 떠올리며.

* 일일신우일신(日日新又日新) : 진실로 하루가 새로워지려면 나날이 새롭게 하고, 또 날로 새롭게 하라.

김광석 중학교를 졸업하고 15세의 나이로 나전칠기 기술을 익힌 뒤 주경야독으로 방송통
 신대 법학과에 입학하여 3학년 도중에 사업 실패로 중도 하차했다. 그 후, 학비 마련을 위
 해 택시 운전과 건설공사 현장에서 노동을 통해 학비를 마련하여, 대한해협을 건너 일본 나
 고야대학 법학 연구과 박사과정을 마치고 지금은 나고야대학에서 한방을 강의 하고 있다.

맑고 향기롭게 '천연화장품 만들기 강좌' 변경 안내

매월 수요일별로 진행하던 천연화장품 강좌를 격월(짝수 달) 수요일로 변경하여 진행합니다.

- 일정 : 짝수 달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 장소 : 길상사내 세계일화실(맑고 향기롭게 소모임방)
- 강좌 주간 순서 : 천연 헤나 샴푸 → 세라마이드 로션 → 한방 상백피 에센스
 → 한방 비누&녹차스킨
- 강좌는 본모임의 업무 일정과 참여 인원이 적을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병우 박사를 아시나요?

1906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공병우 박사의 삶은 '최초'라는 수식어로 가득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안과 의사!
 최초의 안과 병원 개원!
 최초의 쌍꺼풀 수술!
 최초로 콘택트렌즈 도입!

이같이 화려한 경력으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낼 정도로 부를 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병우 박사는 돈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지식을 세상에 어떻게 사용할까였습니다. 그런 그의 삶에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눈병 치료를 받으러 왔던 한글학자 이극로 선생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와의 만남으로 과학적이고 우수한 우리의 한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관심을 쏟게 된 것입니다.

이후 공병우 박사는 한글 타자기 개발을 시작합니다. 병원도 그만두고 얼마나 온 정신을 기울였던지 사람들은 '공병우 박사가 미쳤다며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열정 덕에 공병우 박사의 한글 타자기는 미국 특허를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병우 박사의 도전은 멈춤이 없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한글 타자기도



개발해 내었습니다. 누구보다 한글을 아꼈던 공병우 박사는 그의 나이 82세가 되던 해에도 그 열정을 잃지 않고 한글문화원을 설립하기에 이릅니다. 그곳에서 좀 더 편리하게 한글 자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였으며 실력 있는 젊은 인재들

과 정보를 나누며 프로그램 개발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열정을 쏟은 결과 지금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문서 입력 프로그램인 '아래아 한글'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한글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쳤지만, 의사로서도 본분을 잊지 않았던 그는 미국에 갔을 때 보았던 구급차를 수입해 전국을 돌며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무료 진료를 해주었고, 시각 장애인을 위한 학교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한없이 베풀고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살았지만 한평생 자신에게는 인색하기 그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공병우 박사의 성품은 그의 유언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의 죽음을 세상에 알리지 마라. 장례식도 치르지 마라. 쓸 만한 장기는 모두 기증하고 시신은 대학에 실습용으로 기증하라. 유산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를 위해서 써라.”

그의 유언대로 공병우 박사의 각막은 다른 사람에게 이식되었고, 시신은 의과대학에 실습용으로 기증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죽음은 이를 후에서야 신문을 통해 알려졌고, 빈소도 없고, 장례식도 없고, 묘지도 없었습니다.

* 출처 : 따뜻한 편지를 전하는 '따뜻한 하루'

성장을 멈춰라

이반 일리히 지음 / 이한 옮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소비사회라고 한다. 소비사회, 써서 없앤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 사회에선 우리를 소비자라고 부른다. 나는 이 소비자라는 말에 강한 저항을 느낀다. 사람이 어떻게 소비자가 될 수 있는가? 소비사회는 늘 새것을 숭배한다. 남들이 갖지 않은 좋은 물건을 사 놓고도 더 좋은 새로운 물건을 소유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시기한다. 냉장고가 어떻게 달라지고 세탁기가 어떻게 탈바꿈했든, 그 기능은 거의 같다. 모양만 다르게 해서, 형태만 다르게 해서 새롭게 내놓은 것이다. 그런 새로운 상품에 현혹되어선 안 된다.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것은 돈, 권력, 집이 아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다. 그 사람이 돈과 재산을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그가 어떤 마음을 지니고 그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에 따라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결코 물질적인 것이 본질적인 부가 될 수 없다. 우주

의 선물인 물질은 넉넉한 마음에 따른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먼저 넉넉한 마음의 그릇부터 준비해야 한다. 마음의 그릇이란 무엇인가? 덕이다. 덕은 나누는 일이다. 세상에는 탐욕스런 부자가 있다. 탐욕스런 부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 도둑이 모여드는 것이다.”

법정 스님이 2002년 10월 뉴욕 불광사 초청 법문 중의 일부분이다.

성장을 멈춰라? 하루가 다르게 ‘빨리빨리’를 이야기하고, ‘경제 위기’와 ‘경제 성장’을 외치는 세상 속에서 성장을 멈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발전과 그에 따르는 ‘부의 추구’만을 위해 하루를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성장을 멈춘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말인가? 지구 전체가 폭주

기관차처럼 성장과 발전이라는 맹목적인 방향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가운데 그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적, 사회적 폐해가 너무나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성장과 발전에서 생기는 문제들은 어쩔 수 없는 ‘소규모의 부작용’에 치부해 버리는 것이다.

저자 이반 일리히는 수송체계, 학교, 병원, 에너지 등 소위 발전과 성장을 상징하는 제도들이 일정 단계를 넘어서면 오히려 인간의 자율성을 마비시키고 제도적 통계를 강화함으로써 인간의 삶을 더욱 옥죄게 된다고 말한다. 근대화된 의료 제도는 역으로 건강한 삶을 제한하며, 배움을 의무 취학과 동일하게 여기는 것은 영혼 구제와 교회를 같다고 착각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한다. 이반 일리히가 제시하는, 현대사회의 전반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균형이다. 삶의 균형을 통해 사람, 도구, 집단이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공생적 사회를 이룰 때 다가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또 이반 일리히는 ‘우정’이 세상을 구원하는 한 열쇠라고 말한다.

간디와 많은 사상가에게도 이 우정 이야기는 빼놓을 수 없는 화두였다. 그리고 그는 공생공락 하는 데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시와 자전거와 도서관이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시인이며 시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근대사회로 오면서 이 시적 능력, 자율적 능력이 퇴화했다. 배움이 교육으로 대체되면서 시적 정서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자전거는 속도의 한계, 인간 교통수단의 한계를 의미하고, 도서관은 배움이 가능한 공간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이반 일리히의 또 다른 책 〈학교 없는 사회〉 〈병원이 병을 만든다〉 〈그림자 노동〉 〈행복은 자전거를 타고 온다〉를 통해 그의 사상을 알 수 있다.

- 편집자 주

미역국과 낙지국

글 • 윤언덕(작가)

군 제대를 육 개월 앞둔 나는 '독수리'라는 이름을 가진 훈련의 여파로 손목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독수리' 훈련은 특수부대 등 북의 비정규군이 우리나라 후방 지역에 침투했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민, 관, 군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연례 야외 기동훈련이다. 독수리 훈련에는 연대와 대대급 이하를 중심으로 소규모 병력이 참가했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당시는 해당 지역 육군의 현역 장병과 경찰서의 전투경찰 부대가 출동했다.

내가 근무한(육군 중령이 책임자) 부대는 방위병과 예비군을 포함하면 사단급 숫자의 병력이었지만 기실 현역 사병이라고 해봤자 서른 명이 조금 넘었다. 그래서 휴가병과 타 부대

로의 파견 중인 병사, 취사병마저 독수리 훈련에 편성되었다. 그리하여 비행기에서 들판이나 골프장으로 떨어지는 특전사 군인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해야만 했다.

한번은 비슷한 위치에 대기 중이던 전투경찰 부대와 우리 부대 병사들이 함께 출동한 적이 있었는데 10km 정도의 거리를 군장이라는 무거운 배낭을 둘러맨 상태로 함께 뛰었다.

경찰서장과 육군 대대장은 어느 부대가 빠른지 내기를 걸었다는 소문도 있었다. 전투경찰 부대는 몇 백 명의 인원 중에서 가장 잘 뛰는 이들만 골라서 대기시켰고 우리 부대는 취사병, 당번병, 운전병 등 어중이떠중이까지 동원해서 숫자를 맞춰야 하는

절대 불리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대대장은 전경들에게 뒤지면 이유를 막론하고 전원 가만두지 않겠다는 엄명까지 내렸다. 중대장도 거들었다. "만약 전경들에게 지면 너희는 방위병보다 못한 놈들로 취급하여 매일 10km 구보를 시키겠다는 실로 살 떨리는 엄포성 발언이었다.

현역 육군이 전투경찰보다 전투력이 뒤지면 온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것은 분명해 보였다. 하늘에서 공수부대의 낙하산들이 떨어지자 육군과 전투경찰은 처음에는 비슷한 속도로 뛰었으나 30분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전경들은 서서히 뒤쳐지기 시작했다. 전경들은 주로 테모 진압 연습만 한 관계로 거의 매일 5km 이상을 뛰어왔던 우리에게 비해 지구력이 턱없이 부족해 보였다. 게다가 우리는 죽을힘을 다해 뛰고 있었다. 우리 부대원들이 목표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전경 소대는 뒤쳐져 시야에서 보이지 않았다.

어쨌든 낙하산 근처에 가지도 못했지만, 우리가 전경 소대를 가볍게 제

친 사실은 대대장과 중대장을 끝없이 즐겁게 만들었다. 대대장은 만족해하며 휴식을 명했다. 문제는 그날 저녁이었는데 다들 긴장이 풀어지면서 사고가 생기고 말았다. 평소에 사기가 좋지 않았던 단기 하사 한 명과 병장 한 명이 으스스한 곳에서 난투극을 벌였고 그 장면을 목격한 내가 밀리게 되었다. 그중 한 명이 휘두른 야전삽이 내 손목을 강타하는 바람에 손목 골절상을 입게 되었다. 사고는 대대장에게 즉각 보고되었고 두 병사는 헌병대로 압송되었다. 동시에 나는 국군통합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육군통합병원에 도착하니 환자 중 계급이 낮은 사병들은 선임 입원 병사들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등 호된 신고식을 치르는 것 같았다. 다행히 나는 병장이었고 응급환자였던지라 열의 되어 수술과 회복 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었다. 군의관은 두 달 입원 후 부대로 복귀하면 된다고 했고, 힘들었던 군대 생활에서 모처럼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소위 계급장을 단 어여쁘기 짝이 없는 간호장교가 매일 새벽 다섯 시에 내가 누운 병실에 와서 팔뚝에 고무줄을 묶어 혈관이 피부 위에 튀어나오게 한 뒤 혈관주사를 놓았다. 나는 새벽녘 내 근처에서 인기척이 있을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에 앉은 자세로 거수경례를 하며 예의를 표했다. 주사 맞는 순간은 고통스러웠지만 천사처럼 생긴 동갑의 간호장교가 나를 위해서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수고한다는 것이 미안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내게 “혈관이 잡히지 않아서 윤 병장에게는 주사 놓는 일이 정말 힘들어요.”라는 말을 여러 번 했고 그때마다 나는 미안한 마음에 어쩔 줄 몰랐다. 그 간호장교는 국군병원에서 미모면 미모, 성품이면 성품, 모든 면에서 천사라고 불리고 있었다. 국군 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한 그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명찰에 달린 그녀 이름과 집이 포항의 죽도시장 뒤편이라는 소문 정도였다.

두 달 후 완쾌된 나는 다시 부대에 복귀하기 위해 사단 보충대에서 일주일을 대기했다. 그곳에서 같은 국군 통합병원에서 눈 수술을 받고 나처럼 부대에 복귀하는 김 아무개 병장을 만나게 되었다.

사단 본부 보충대에서 둘이서만 일주일을 보내게 되니 자연스레 친해지게 되었다. 세상과 인간에 대해 논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지만 둘의 화제는 단연 간호장교 김 아무개 소위였다. 눈 수술 후 완쾌될 때까지 앞을 보지 못하는 자신에게 김 소위는 옆에서 매일 책을 읽어 주며 간병을 해주었기에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이라 했다.

나 역시 한 달 동안 매일 새벽에 일어나 혈관을 찾으며 주사를 놓아주었던 천사의 존재를 잊을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했다. 급기야 두 사람 입에서 제대한 후에 그녀와 결혼하겠다는 이야기가 동시에 나오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도 웃기는 젊은이들이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자신감만 충만했던 것이다. 둘은 누가

그녀를 차지하는지 내기를 하기로 했다. 같은 달 제대 예정이던 둘은 서로의 집 주소를 주고받은 후 보충대를 떠나 각자의 부대로 복귀했다.

길었던 이야기의 결말을 적어보도록 하겠다.

10월 말에 제대하여 맞이한 이듬해 3월의 캠퍼스에서였다. 지도 교수는 40대 후반의 여교수였다. 선생님은 내게 ‘학교는 군대와 다르니까 사회에 적응하려면 워밍업을 해야 하니 천천히 세상과 접해라’는 충고를 주셨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사회에 더 적응되기 전에 김 아무개 소위에게 용감한 편지를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펜을 들었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아무개 병장입니다……. 복학했습니다……. <중략> 한 인간이 다른 한 인간을 사랑하는 일이라말로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는 내용이요지였던 편지로 기억한다.

물론 당연하게도 그녀에게서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고 연말이 되었다. 요즘은 거의 사라진 풍습이지만 당시는 연말에 크리스마스카드를 보내는 것이 지인들에게 중요한 예의로 여겨지던 시절이었다. 나처럼 그녀를 사모했던 김 아무개 병장에게 크리스마스카드라는 명목의 서신을 보냈다. 염려 덕분에 복학하여 학업에 열중하고 있다는 내용과 김 소위에게 연서(戀書)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었다는 것, 미역국을 먹은 것 같다는 내용을 적었다.

며칠 후 답장이 왔다.

‘윤형, 저도 무사히 제대했습니다. 복학하여 적응 잘하고 있고요……. 김 소위에게 저도 연서를 보냈습니다. 하하, 물론 낙지국을 먹었지요…….’

그를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가 느꼈던 낭패감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나와 같은 심경일 것이므로, 추억 일지도 모르고 사랑일지도 모를 그 시간이 고요히 아주 고요히 침묵과 세월 속에 말없이 가라앉고 있었다.

지금 다시 인부를 물어본다. 그리운 길동무들. 지금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상대방 입장이 되자

글 • 김정희(한국부름의전화 대장)

연말 연초, 날씨가 추워지면 어김 없이 떠오르는 기억이 있다. 해가 여러 번 바뀌었음에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입버릇처럼 “말하던 상대방 입장이 되자”를 무색하게 했던 일이었기 때문이다. 한 해를 마무리 할 준비로 한창 바쁜 시간에 “차 가지고 와서 냉동육 가져가세요”라는 전화를 받았다. 예고도 없었던 일이라 준비도 없이 서둘러 모처로 달려가서 물품담당자가 창고에서 꺼내놓은 냉동육을 승합차에 가득 실었다.

당연히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데 사무실로 향하는 마음이 무거웠다. 부름의전화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서울의 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들을 방문하여 냉동육을 전달하려면 자원활동자 한두 사람으

로는 불가능할 것 같았다. 그러나 갑자기 생긴 일이라 자원활동자를 부르는 일도 여의치 않았다. 그렇다고 냉동육을 보관해두었다가 자원활동자를 확보한 후에 냉동육을 전달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 많은 냉동육을 보관할 냉동실이 없기 때문이다.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밤을 새워서라도 장애인 가정을 방문하여 냉동육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또한 문제가 있었다. 찾아가는 사람이 밤을 지새우는 것은 각오한 일이지만 장애인이 몇 시에 도착할지도 모르는 일에 밤잠을 자지 않고 기다리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밤을 지새워서라도 냉동육을 전달하기로 하고 긴급연락을 받고

달려온 자원활동자와 의논한 끝에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재가장애인 가정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나는 강서구역의 장애인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가족 중 누군가가 현관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면 냉동육을 빨리 전달하고 다음 가정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첫 번째 찾아가는 장애인의 인적 사항을 살펴보았다.

“동생과 두 사람이 생활한다고 적혀 있었다. 동생보고 현관으로 나오라고 하면 되겠구나! 생각하며 도착하기 전에 전화를 했다.

“동생 집에 있어요? 동생 좀 밖으로 나오라고 하세요” 부탁을 하고 냉동육을 들고 장애인 집 현관에 도착했다. 당연하게 동생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었다. 초인종을 누르고 문이 열릴 때를 기다렸다.

그러나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아무도 안 계세요?” 큰 소리로 장애인을 불렀다. 그러자 “문 열려있

어요. 그냥 안으로 들어오세요” 들릴 듯 말듯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방문하기 전에 미리 전화로 부탁하지 했는데 너무하는 것 아닌가? ‘한겨울에 냉동육을 한 아름 안고 찾아갔으면 당연히 마중 나와서 받아들든지 아니면 어디에 어떻게 두라는 말이라도 해야 하는 게 상식 아닌가?’ 꽤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않은 채 신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방안에는 근이양증으로 몸도 가눌 수 없는 남자가 옆으로 넘어갈 듯 한 자세로 가까스로 앉아 있었다. 순간 목구멍으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연민의 정이었다. 차마 그 모습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어 외면하고 말았다.

동생이라도 나와 주었다면 이런 황당한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동생은 어디 갔어요?” 라고 했다. 눈짓으로 동생이 거처하는 방을 가리켰다. 동생이 거처하는 방문을 열었다.

“에구머니— 또 한 남자가 똑같은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그랬구나, 동생 역시 근이양증의 중증장애인이었구나, 그런 사람에게 밖으로 나와서 냉동육을 받으라고 했으니 얼마나 기막혀했을까.’

미안함과 안쓰러움 때문에 말문이 막혀버렸다. 차마 미안하다는 말도 못하고 안절부절못하고 있는데 그런 일에는 이미 길들었음인지 답답한 모습으로 미소까지 띠고 자리에 앉기를 권하며 얼마 전에 있었던 사례를 들려주었다. 냉동육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도 잊은 채 장애인 옆에 앉아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낮에는 자원봉사자가 찾아오기도 하고 도우미가 와서 집 안 청소를 비롯하여 신변처리까지 해결해 주어 불편한 대로 그러저럭 지낼 수 있지만 밤이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다고 했다. 그 심각하다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의 말을 경청했다.

“한밤중에 소변을 보고 싶은 겁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사

람이 무슨 수로 소변을 볼 수 있겠습니까? 생각다 못해 119로 전화를 했습니다. 소변을 보고 싶어서 불렀다고 하면 당신 제정신이야 라고 할 것은 자명한 일, 그래서 급한 환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에 119구조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방안으로 들어와 들것에 태우려고 하더군요. 조심스럽게 급한 용무를 이야기했습니다. 기막혀 하더라고요. 한 사람은 얼굴을 붉히며 불쾌한 표정까지 지었습니다. 소변을 보는 일이야 갖 난 여련에도 처리할 수 있는 일인데 아무리 장애인이라 해도 어른인데 간단한 일도 처리하지 못하느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간단한 일조차 처리가 안 된다는 것을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인가의 도움 없이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 이해했는지 저를 자리에서 일으켜 앉혀놓으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손이 제 몸에서 떨어지는 순간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깜짝 놀라서 다시 일

으켜 앉혀놓으려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뒤로 넘어졌습니다. 비로소 누구에게나 당연한 일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며 중증장애인에게 현관에서 기다리라고 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지 생각해봤다. 119구조대원들의 일이 마치 내 이야기인양하여 민

망하여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부름의전화는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상대방 입장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있지만 실은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등에 장애인들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나는 말해야 한다. “상대방 입장이 되어야 한다”고…….

녹색나눔장터 참가자(팀) 모집합니다

(사)맑고 향기롭게는 생활 속에서 재사용과 자원순환의 녹색문화를 공유하고자 작은 녹색나눔장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녹색나눔장터’는 4월에 시작하여 10월까지 4째 일요일(월1회 개최 예정)에 길상사 트랙에서 진행하며, 회원님과 신도님이 즐겁게 참여하고 운영하는 장으로 펼치려 합니다. 장터 참여 품목은 오래된 물건을 새롭게 리폼한 물품(의류, 소품), 직접 재배한 유기농 산물, 수제 천연화장품, 재고로 남은 환경용품, 불교문화 창작품 등입니다.

개인이 참여할 경우에는 재사용과 판매가 가능한 물품을 베품시장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참가는 사전에 접수하여야 하며, 수익금의 20%를 불우이웃 돕기 기금으로 후원해주셔야 하며, 아름다운 지구를 위해 일회용 용기는 쓰지 않아야 하며, 장터가 끝나고 남은 물건은 기증하거나 잘 챙겨서 가지고 가야 합니다.

- 참가 신청 및 문의 : 맑고 향기롭게 사무국 02-741-4696

베토벤과 아인슈타인의 선물

글 • 문헌철(조선대 법학과 외래교수)

시골에서 자랐지만 운 좋게 일찍이 클래식 음악을 접하게 된 필자는 베토벤에 관심이 많았다. 고교 시절 광주에 베토벤 클래식 음악 감상실이 문을 열자 틈만 나면 달려갔다. 그곳에서 역시 베토벤을 좋아하셨던 법정 스님을 만나게 됐다. 그 만남으로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다. 베토벤이 평생 은인이신 법정 스님과의 인연을 주선해준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 후 세월이 흘러 대학에 자리 잡은 후 무작정 베토벤의 생가가 있는 독일로 향했다. 간 김에 베를린에 들러 노벨상을 29명 배출한 훔볼트 대학을 방문하게 됐고, 공교롭게도 3년 뒤 그 대학에서 개최된 재해방지법 연구소 개소식에 유일한 동양 사람으로 참석하게 됐다. 행사가 진행된

강의실은 아인슈타인이 1914년 교수로 재직할 당시 강의를 진행했던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 후 나는 베를린시청과 연방 재난관리청,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EU) 재난관리청 등을 혼자서 지도한 장 들고 종횡무진 다니는 만용을 부리게 됐다. 매년 학회가 있을 때마다 광활한 시베리아를 횡단하는 비행기에서 과학적 상식을 메모한 상상노트와 베를린 쇠네펠트 공항에 착륙할 때 섬광처럼 스친 아이디어를 토대로 특허를 출원, 등록하는 경험도 하게 된다. 사촌 형님이 사촌 바이올린이 베토벤과 법정 스님 그리고 아인슈타인을 만나게 해주고, 그과정의 2만km 여행 중 스친 상상력을 특허로 연결해준 셈이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이분들과 깊은 인연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나를 역사적인 사람으로 생각하고 귀하게 여긴 결과였다. 당연히 매사를 자신감 있게 그리고 너그럽이 대하니, 귀한 만큼은 밤하늘 별빛처럼 반짝이며 기다리고 있다가 중요 순간마다 나를 도와주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나를 역사적인 사람으로 생각하는, 즉 자존감(自尊心)이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인 주관적 느낌을 가리킨다고 심리학자들은 말한다. 병영생활은 나를 역사적인 존재로 만드는 강의실이며, 자존감 향상의 발전소다. 그래서 군 복무는 일생일대의 행운이라 할 수 있다. 작전지역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은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참으로 소중한 역사적인 존재다.

군 복무를 하는 동안 자신이 국가를 위해 매우 귀한 역사적 평가의 시점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존감도 경험과 연습, 훈련으로 만들어지고 향상될 수 있다. 어린 시절의 가족관계가 자존감 발달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심리학자들은 진단하지만, 그것은 성인이 된 후에도 따뜻한 경험과 귀중한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타인을 향한 베품의 연습과 훈련을 통해 더 크게 길러진다.

위기 시에 나와 가족, 이웃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많은 훈련들이 진행된다. 을지프리탐가디언즈 훈련, 민방위 훈련, 화랑훈련, 재난대응훈련 등이 진행된다. 이러한 훈련들이 국민보호라는 측면과 다른 한편으로는 자존감을 향상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국민보호 국가위기관리 훈련을 수행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이미 역사적인 존재인 것이다.

문헌철 대학생 시절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 학업을 고심하던 시기에 법정 스님에게 장학금을 지원받고 법학 박사가 되었다. 현재 대한민국 안전행정위원회, 입법지원위원회에서 국방, 재난, 위기관리 등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헬렌 켈러의 사흘간의 소망

글 • 김창수(희망아카데미 원장)

‘빛의 천사’ 헬렌 켈러는 대학교를 마친 세계 최초의 장애인이자 전 세계 장애인들의 큰 별이다. 1880년 부유한 집에 태어나 축복과 사랑을 받고 자랐다. 하지만 생후 19개월 지날 때 열병에 걸려 시각과 청력을 잃었고 말을 하는 것도 잃어버리게 되었다.

1886년 시각장애를 가진 20세의 앤 설리번 선생을 만나면서 헬렌 켈러의 또 다른 인생이 시작되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1890년부터는 말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헬렌 켈러는 앤 설리번 선생님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손으로 만져가며 말하는 것을 배웠는데, 1900년 20세 하버드 대학의 레드크리프 칼리지에 입학할

때, “나는 이제 농아가 아닙니다.”라는 말을 던지며 세상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 1904년 대학을 졸업한 그녀는 독일어를 비롯한 5개국 언어를 구사하게 되었고, 미국 역사 최초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시각장애인이었다.

헬렌 켈러가 6세 때 만난 앤 설리번 선생과의 49년 인연은 62세의 나이인 1942년 세계 2차 대전 전장에서 부상병 구제운동을 펼칠 수 있는 열정의 원동력이 되었다. 앤 설리번은 시각장애의 몸으로 8세 때 어머니를 잃고 남동생 지미와 함께 빈민 보호소에 보내어져 부랑아들 속에서 악몽 같은 나날을 보냈다.

남동생 지미는 빈민 보호소를 견

다다 못해 결국 세상을 떠났다. 홀로 남은 앤 설리번은 복지 요원들에게 구조되어 퍼킨스 맹아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그 후 퍼킨스 맹아학교 교사가 되었다. 어느 날 학교를 찾아온 헬렌 켈러를 만나 서로를 볼 수 없는 시각장애를 가진 인연으로 하나 되어 마음과 마음을 연결한 진정한 헬렌 켈러의 가정교사가 되어 49년 긴 세월 동안 함께 생활했다.

세상은 혼자 존재할 수 없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서로가 서로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다.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로 어떻게 만나서 살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이 또는 가족이 함께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그만큼 삶의 결정이 중요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헬렌 켈러보다 훨씬 다양한 만남을 선택할 수 있는 축복받

은 인생이다. 하지만 축복받은 우리의 현실이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돌이켜 볼 때 과연 스스로가 올바른 선택을 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져야 한다. 100년을 먼저 살다간 헬렌 켈러가 스스로를 채찍질한 말을 되새겨 볼 이유이기도 하다.

“고개 숙이지 말자. 세상을 똑바로 정면으로 바라보자. 나는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내 영혼을 잃지 않았기에,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보이거나 만지지 않습니다. 단지 가슴으로만 느낄 수 있다. 아름다움은 내부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빛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삶에, 아니 타인의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를 것이다. 희망은 인간을 성공으로 인도하는 신앙이다. 희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 헬렌 켈러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창식 역, 2005. 05. 20

김창수 맑고 향기롭게 회원이며, 건설회사에서 16년을 근무하고 명예퇴직한 후 열정의 씨앗을 심는 동기부여전문가로, 희망특강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난대수종의 전시장 달마산 미황사

글 · 박희준(사찰생태연구소 생태연구팀장)

1. 해남의 지형

해남은 한반도의 최남서지역으로 수많은 도서들이 산재하고 있는 칩강해안으로 심한 굴곡을 이루고 있으며 해침에 의해 가파른 해식절벽을 형성하고 있다. 지세는 매우 험준한 편이며 고봉을 이루거나 첨예한 능선을 이루어 하천은 짧고 나뭇가지 모양으로 바다로 직접 흘러든다. 한반도의 남부는 중생대 백악기 북서태평양 일원에서 있었던 격렬한 화산-심성활동의 지역 중 하나이며 해남이 여기에 속해있다. 불과 2000년 전까지만 해도 현재의 해남의 해안선의 모양과는 그 생김새가 달랐다. 송지면 군곡리에서 발견된 패충은 바로 그곳까지 바다가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된다. 지금은 논 한가운

데 있지만 말이다. 군곡리 패충은 경작지를 개간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는데 경작지 한가운데서 패충이 형성된 것은 해안선의 변화 때문이다.

백두대간의 영취산에서 호남정맥이 분기해서 전남 광양의 외망마을 앞 바닷가에서 그 맥을 다하게 되는데 이 호남정맥은 깃대봉과 삼계봉 사이에서 다시 영산남기맥과 땅끝기맥으로 나뉘는데 땅끝기맥은 우리나라 반도의 최남단인 땅끝마을에서 그 맥을 다하는 약 120km의 산줄기이다. 땅끝기맥은 산세는 낮은 편이지만 월출산, 별매산, 덕룡산, 주작산, 두륜산, 달마산 등 모두 남도의 아기자기한 바위산을 모두 지니며, 그 중 월출산(809.8m)의 절경

은 최고라 할 수 있다. 또한, 땅끝 지역 특히 달마산의 달마봉은 한반도의 끝부분에서 볼록 솟아오른 봉우리로서 이곳에 오르면 동쪽의 완도와 서쪽의 진도를 한 번에 볼 수 있고, 장엄한 일출과 아름다운 일몰을 함께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며, 달마산 미황사 응진당에서의 일몰은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2. 병풍바위에 안긴 천년고찰 미황사

우리나라의 육지 끝 최남단에 자리한 절집인 미황사(美黃寺) 대웅보전 용마루의 부드러운 곡선과 달마산(489m)이 거느린 거친 암봉들이 능선을 이루며 만들어내는 병풍바위가 잘 어울려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한다.

미황사는 돌로 만든 배를 타고 온 검은 소가 었드려 일어나지 않은 지점에 창건한 절집인 천년고찰로 한때 도솔암, 문수암 등 열두 암자를 거느렸던 큰 사찰이었으나, 150년쯤 전에 중건 불사를 위해 스님들이 ‘궁고’라는 전문 공연놀이패를 꾸려 해안 지

방 순회공연을 다녔는데, 한번은 청산도로 공연을 하러 가던 중 폭풍을 만나 설장고 스님만 남고 모두 죽음을 당했다. 그 뒤 미황사는 쇠락하기 시작했고, 결국 대웅보전(보물 제947호)과 응진당(보물 제1183호) 등 몇 채의 전각만 남게 되었는데, 현재의 주지 스님인 금강 스님께서 중창불사를 일으켜 현재에 이르렀다.

미황사의 대웅보전 기둥을 받치는 연꽃 모양의 주춧돌에 게, 거북이 같은 바다 생물이 새겨져 있는 것은 바닷길을 통해 달마산에 불법이 도착했다는 창건설화의 암시로 풀이되고 있다.

부도전으로 가는 동백 오솔길도 놓치기 아깝다. 동백 꽃내음에 파묻혀 산새 지저귀는 소리에 호흡 맞춰 걷는 맛이 좋다. 비와 바람에 마모되어 옛 향기 그윽한 부도들은 미황사의 위상을 짚어볼 수 있는 증거가 된다. 이곳 부도 기단 하부에도 용, 학, 연꽃 등과 더불어 대웅보전에 새겨진 바다 생물이 새겨진 것과 같이 거

북이, 물고기, 게 같은 바다 생물이 새겨져 있다.

신비로운 형상을 한 바위 병풍엔 달마산 미항사의 빛깔에 어울리는 샘이 있다. 이른 아침 햇살을 받으면 금가루를 뿌려 놓은 듯 빛난다 하여 금샘이란 이름 지어진 금샘은 경내를 돌아 문바위재 쪽으로 40~50분쯤 오르면 고갯마루 조금 못 미친 곳에 있는 커다란 암벽에서 솟아나는 석간수인데 작은금샘과 금샘이 있다. 작은금샘은 바위의 구멍에 고이는 석간수로 표주박으로 뜨기 좋은 정도로 고이는 샘이며, 금샘은 커다란 바위로 아래에서 고이는 석간수로 작은금샘에 비해 규모가 크다. 금샘이라는 이름은 작은금샘에 비치는 노을빛이 금빛으로 보이기 때문이라 하니 금샘의 유래는 작은금샘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3. 미항사의 내화수림대와 난대숲

지금까지 달마산의 중턱에 위치한 미항사에서 내화수림대를 밝힌 사례는 없었다. 그런데 2007년 늦가을



달마산에서 바라본 미항사, 미항사 주변에 광엽상록수가 집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찰생태연구소에서 미항사 일대의 생태지도를 작성하면서 내화수림대의 존재를 밝혔다.

미항사의 내화수림대는 대표적인 난대수종인 동백, 붉가시나무, 생달나무 등등 다양한 수종의 늘푸른넓은잎나무가 사찰주변으로 빼곡하게 자라고 있다. 누가, 언제 조성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늘푸른넓은잎나무가 사찰주변으로 집중되어 생육하고 있는 것은 누군가가 조성한 수림대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미항사 일대의 난대수종은 진입로부터 시작되는데 진입로 좌우로 상록 침엽수인 삼나무와 편백나무가 반겨 주고, 주차장에서 내려 미항사를 오

르면서 난대숲의 진수를 만끽할 수 있다. 주차장의 화장실에서 미항사 가는 길가에서 살펴보면 넓은잎 떨기나무로 떨구슬나무, 말오줌때, 나도밤나무, 까마귀베개 등이 있고, 넓은잎늘푸른나무로는 생달나무, 굴거리나무, 광나무, 동백 등이 있고, 좁은잎늘푸른나무로는 삼나무, 비자나무, 편백나무 등을 만날 수 있다.

이 길에서는 중부지방에서 볼 수 없는 또 하나의 눈요깃거리를 제공하는 식물이 있다. 찻집 앞 빈터에서 부도전으로 가는 길가에 있는 알파리와 배롱등이 그것이다.

미항사가 가까워지면서 찻집이 나오고 이 찻집 주변에는 팽나무, 가시나무 등의 키큰나무들이 많이 보인다. 물론 키큰나무들 아래로는 팽나무, 생달나무, 동백나무 등의 넓은잎늘푸른나무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다. 가시나무로는 붉가시나무, 참가시나무, 중가시나무, 줄가시나무, 개가시나무 등이 있는데 붉가시나무는 잎이 크고 잎자루가 길며 결각이

없어 구분이 쉽고, 줄가시나무 또한 이름에 걸맞게 작은 느낌이 강하여 구분이 용이하지만 참가시나무, 중가시나무, 개가시나무는 구분이 쉽지 않다. 가시나무 종류가 우거진 찻집 앞의 숲 속에는 넓은잎을 가진 상록관목으로 중부지방의 사찰에서 관엽식물로 많이 식재하는 식나무가 수줍은 듯이 생육하는 장소이다.

대응보전에 이르기 전 자하루를 지나게 되는데 자하루가 세워진 석축의 중간 소단에는 좌·우 양측으로 해송이 3그룹씩 심어져 있고, 그 아래는 습하여 습지에서 자라는 골풀, 방동사니 등이 자라고 있다. 자하루를 들어서 계단을 올라서면 우측으로 수곽이 있고, 그 주변에 차나무가 식재되어 있다. 차나무는 겨울에도 녹색을 간직하고 추운 시기에 꽃을 피우며 종자를 맺는다. 또한 직근성 뿌리가 지상부가 자라는 만큼 땅속으로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장수목(오래된 차나무로 천년이 된 나무도 있다고 함)으로 불리기도

하며, 직근성 뿌리를 깊게 내리는 특
성으로 인하여 옮겨 심을 경우 잘 죽
기 때문에 시집가면 그 집에 깊게 뿌
리내리고 잘 살라는 뜻으로 시집갈
때 함에 차나무의 씨앗을 넣어 보내
기도 하였기에 지조목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미항사 대응보전 좌측으로 지금
은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우물이 하
나 있는데 이 주변의 석축에는 콩짜
개덩굴, 남오미자 등 난대숲에서 자
라는 대표적인 식물이 자라고 있어
달마산과 미항사가 난대숲에 있음
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다. 이 우
물에서 돌계단을 올라서면 향적당인
데 이 향적당 앞에 비파나무 한그루
와 유자나무 한그루가 향적당 마루
에 한여름의 시원한 그림자를 만들
어준다.

대응보전 앞 양쪽으로는 불두화
가 심어져 있는데 미항사를 찾았을
때 그중 한그루에 뱀의 허물이 걸려
있었다. 절집에는 뱀이 자주 나타난
다. 뱀은 냉혈동물이기 때문에 먹이

를 먹은 후 따뜻한 장소를 찾아 몸
은 덥혀 소화가 잘되도록 돕고 몸의
활성도 높여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찰의 전각들은 대부분 목재로 지
어지기 때문에 통풍이 중요하고, 큰
행사를 할 때는 많은 불자들이 모
일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며, 부처님
을 모신 대응전의 자연채광을 위하
여 전통사찰의 대응전 앞마당은 나
무를 심지 않고 비워둔다. 따라서 햇
볕이 잘 들어 따뜻하기 때문에 뱀들
이 몸을 덥히기 위해 종종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사람이 숨을 쉬듯이 숲도 숨
을 쉬어야 건강한 숲이 되는데 사찰
이 없는 숲에서 애추(산에서 돌이 흘
러내리는 지역)가 숲의 숨구멍이 되
는 것처럼 마당이 비워진 사찰이 뻣
뻣한 숲의 숨구멍 역할을 하기도 하
는 것이다.

느낌만 말하기

글 • 고현희(공감대화 개발원장)

남편이 퇴근 후 집에 왔습니다. 집
안의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아이
들은 벽을 바라보고 앉아서 발을 받
고 있고, 아내는 화가 나서 말합니다.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아랫집에서
연락 올 수 있으니 뛰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도 안 듣더니, 결국
아랫집에서 연락 왔어요!' 이 때 남편
이 어떤 말을 하면 공감대화가 되어
아내의 화가 풀리고, 마음이 열릴까
요? 지난 호의 '앵무새 되기를 읽으
셨지요? 그 기억을 떠올리시어 실제
말하는 것처럼 해보세요.
남편의 말: _____

공감대화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
를 때 앵무새가 말을 따라하는 것처
럼 하시면 됩니다. 남편이, '아이들이

뛰어서 아랫집에서 연락 왔군요!' 라
고 아내를 바라보며 공감해주면 아
내는 공감 받은 것으로 마음이 열려
더 많은 말을 쏟아놓을 것입니다. 그
러면, 다시 아내의 말을 반복해주면
됩니다. 공감을 받으면 마음이 열리
며 자유롭게 자신의 상황이나 의견
을 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화가 이어지다가, 남편이
아래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왜 맨날 화를 내요?'
'아이들은 다 뛰면서 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당신은 아이들을 너무
잡아요.'

'아랫집 사람들은 아이들 뛰는 것
을 이해 못하는군요.'

'우리가 여기서 이사를 가야겠네요.'

남편의 다양한 반응은 모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들의 어디에도 남편의 느낌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남편은 어떻게 느끼는지 궁금하시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느낌을 말하는데 서툽니다. 느낌을 말하는 것을 듣고 자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느낌의 단어가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느낌의 단어는 10개 정도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느낌의 단어는 '화난다'가 아닐까요? 그래서 지구의 어느 나라에도 없는 '화병'이 대한민국에는 있나봅니다. 그런데, '화병은 화를 내서 생기는 병이라기보다는 참아서 생기는 병입니다. 올라오는 화를 꼭 참아서 병이 되는 것입니다. 천수경의 십약 참회 중 '진애중죄 금일참회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느낌이 '화인데, 화를 내면 참회해야 하고, 화를 참으면 병이 되고... 하지만, 공감대화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알아차리고, 말을 하라

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말을 하고, 왜 화가 났는지 말해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소통하게 되면 다음에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화를 안 낼 수 있게 됩니다.

위 상황에서 2~3회의 '앵무새 되기를 실천하여 아내의 말을 반복해 준 후 남편이 아래와 같이 공감대화로 말한다면 멋진 소통을 경험하게 되고, 아이들은 생활에서 공감대화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이런 상황마다 아이들에게 화내는 것을 보면 나도 화가 나요.'

'아이들은 다 뛰면서 크잖아요. 그 것을 가지고 당신이 아이들을 너무 잡는 것으로 보여 속상해요.'

'아랫집 사람들이 아이들 뛰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이 답답하네요.'

'우리가 여기서 이사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니 고민이네요.'

이렇게 남편이 말하면 아내도 주의 깊게 남편의 느낌을 받아들이고 대화를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말을 해야 할 때 '느낌 말하기'를 떠올리세요! 동시에,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을 '꼴딱~' 삼키세요. 그리고 느낌만 말하세요. 그 상황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 상황을 비난하지도 마세요. 그 상황을 그대로 설명하면서 느낌만 말하세요. 상황을 설명하기 어려우면, 그냥 느낌만 말하세요. 이것이 공감대화의 기본입니다.

아래 상황에서 할 말을 적어보세요.
상황 - 중학생 딸이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입술이 분홍색으로 칠해져 있다. 아침에는 분명히 아무 것도 바르지 않고 갔었다.
엄마의 말: _____

이 상황에 엄마가 할 수 있는 말을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를 비난하는 말로, '아니 중학생 입술이 그게 뭐니?' 입니다. 더 심하면, '너, 도대체 왜 이러니? 학생 맞아?' 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이 교육을 잘못시켰구

나.' 입니다.

세 번째는 엄마의 느낌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입술을 보고 너무 놀랐어.' 혹은, '깜짝 놀랐어, 내 딸 아닌 줄....' 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아이를 보고 그 마음을 짐작하여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쁘게 보이고 싶었구나?' 혹은, '엄마에게 혼날까봐 걱정 되니?' 혹은, '친구들과 어울려서 발랐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분이 적은 말은 어느 것에 해당되시나요? 적은 말에 느낌이 있으신가요? 만약 느낌이 없는 말을 적으셨다면, 세 번째와 네 번째 말에서 느낌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느낌의 말은 '놀랐다, 예쁘게 보이고 싶다, 걱정 된다'입니다.

'느낌만 말하기'를 제일 먼저 떠올리시고, 기회마다 상대의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시어 만족스러운 대화의 경험을 가지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참, 첫 술에 배부르지 않은 것이시지요?



중앙모임 소식 (02-741-4696~7)

2016년 정기 대의원 총회 공지

시민모임 「Maigo Hangigomge」는 2015년 회계연도 마감에 따라 대의원 총회를 2월 26일(금) 2시에 진행합니다. 안건으로는 임원, 대의원 선출 및 2015년 회계 감사보고, 각 지역 모임 2015년 사업 결과 및 결산 심의 및 2016년 사업 사업계획안·예산안 심의, 의결입니다.

Maigo Hangigomge 정기 자원 활동 봉사자 모집

* Maigo Hangigomge 반찬 나눔 조리 활동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손 가정을 위해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밑반찬을 지원합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 전에 끝나는 활동으로, 조금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씩씩 해주실 수 있는 봉사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차가운 날씨에 따뜻한 마음을 이웃들에게 나눠주시는 분은 연락해주세요.

* 전화 말벗 자원 활동 안내

Maigo Hangigomge 반찬 나눔 대상자 중 독거노인, 장애인 등에게 봉사자가 가정에서 정기적인 전화 통화를 하여 일상적인 안부와 건강, 영양 상태, 생활환경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더불어 대상자의 소외감과 고독감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입니다. 함께하실 봉사자를 찾고 있으니 대화기법 · 상담 등에 소질이 있는 분은 함께해주세요.

* 진인 노인요양원 정기 자원 활동

진인요양원 자원 활동은 오전에는 시설 청소, 주방 봉사를 하고, 오후에는 어르신과 어울려 민요, 국악 등 놀이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정기적으로 꾸준히 참여하실 봉사자를 찾습니다. 매월 둘째 일요일 오전 8시 30분, 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에 모여 이동합니다.

* 서울노인복지센터 정기 자원 활동 (매주 월요일)

서울노인복지센터 자원 활동은 어르신을 위한 점심 무료급식 활동으로 배식, 설거지 등을 합니다. Maigo Hangigomge 봉사팀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식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 서울노인복지센터 정기 자원 활동 (매월 첫째 일요일)

매월 첫째 일요일 진행해오던 모희원(노인요양원)의 농사일과 시설 정비 자원 활동에 봉사 일거리가 많지 않아 2015년 12월로 종료하고, 2016년 1월부터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노인복지센터 급식 자원 활동으로 전환하였습니다.

* '아름다운 만남' 청소년 정기 자원 활동

'아름다운 만남' 자원 활동은 청소년 자원봉사자가 홀로 어르신의 집을 월 1회 정기적으로 방

문하여 말벗과 청소를 해드리고, 안마나 동네 산책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생동감과 발달함으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위축된 어르신을 위로하고, 생의 의지를 돋우는 프로그램입니다.

본 모임은 어르신과 청소년 간의 1:1 결연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함께 할 청소년 봉사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녀를 둔 회원님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친환경 용품 만들어 주실 분

녹색장터가 열리지 않는 겨울동안 가정에서 친환경 수세미를 비롯한 친환경용품을 만들어 기증해주실 분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의류 리폼(재단, 디자인)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환경운동으로 안 입고, 못 입는 자투리 천을 이용하여 각종 소품이나 재활용품을 만들어 녹색장터를 통해 판매, 수익금으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금으로 적립합니다. 모임은 매주 화요일에 있습니다.

의류 리사이클링 소모임 강좌 참가자 모집

가정에서 입지 않는 의류를 재활용하여 생필품으로 재순환하여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을 살리자는 취지로 3개월 과정으로 무료 강좌를 매주 금요일 진행합니다.

- 내용 : 참가자가 안 입는 옷(청바지, 남방 등)을 가져와 3개월 동안 손바느질, 재봉틀을 활용한 리폼 방법을 배우고 공유하여 각

자 가정에서 환경을 살리는 생활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사무국으로 전화하셔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후원금액, 원하시는 출금 일자 등을 말씀해 주시면 편하게 신청됩니다. 지로용지에서 CMS로 변경하면 환경을 살리는 작은 실천과 더불어 봉사자와 사무국의 일손을 줄일 수 있고, 운영 경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하신 은행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일시 후원

뜻 깊은 일이나 기념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모임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지를 받아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접 본모임 후원 계



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 본모임 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분 중에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신 분은 인적사항이 필요하므로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 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 모임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 번호 : 7618372

지로영수증으로 은행에 가지지 않고도 인터넷(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2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활동 : 1일(월)/오전 10시~12시/세계일화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자원활동 : 목, 금요일(4, 5, 11, 12, 18, 19, 25, 26일)/오전 9시 30분~오후 2시/맑고 향기롭게 반찬 나눔 조리장(길상사 주차장 위)/양념이 묻어도 괜찮은 옷차림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활동 : 매주 월요일(1, 15, 22, 29일)/오전 10시~오후 2시/배식, 설거지, 식탁 정리, 수저 나누기 등/수시모집중/자원활동가교육 후 봉사
- 친인노인 요양원 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마

당 정기 자원활동: 둘째 일요일(14일)/오전 8시 30분/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

- 전화말벗 봉사자 정기모임 : 넷째 화요일(23일)/오후 1시30분/사무실
 - 아름다운 만남(청소년과 독거어르신과의 만남) : 셋째 토요일(20일)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의류재활용봉사모임 : 매주 화요일(2, 16, 23일)/세계일화실
 - 의류 리사이클링 강좌모임 : 매주 금요일(5, 12, 19, 26일)/세계일화실
 - 천연화장품만들기강좌(짜수달): 3, 10, 17, 24 일(수)오후 1시30분(삼푸, 로션, 에센스, 비누&스킨)/세계일화실/선착순 최대6명/재료비 본인 부담

❖ 일반사업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3-129
외환은행 117-13-60373-4
농협 029-01-199412

❖ 결식이웃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5-458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13-787953

❖ 장학금 후원계좌

외환은행 141-22-01683-9

- 예금주 : (사)맑고 향기롭게
- 문의 : ☎02)741-4696



대전모임(중앙직할)

- 자혜원(아동양육시설)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스님 학교 후원
 - 충남대 대불련 자원
- 후원 : 우체국 312850-01-000142
(사)맑고 향기롭게 대전지부

대구모임 (053-753-8883)

- 정기 홍보활동 : 맑고 향기롭게 스티커, 홍보책자, 동전 모금통을 관공서, 지하철역 등에 배포 및 홍보활동
 - 홀로 어르신 밑반찬 조리, 배달 및 말벗 나눔 : 매주 수요일/11시-음식조리, 19시-말벗(배달)봉사/자원봉사자수시모집
 - 어르신 웃음교실 및 토요일 경로급식 : 매주 토요일/10시 30분-음식 조리/11시 30분-웃음치료강의/12시 30분-점심 및 차담/2시-마무리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 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목욕, 식사도움, 빨래정리, 말벗
 - 대구노인종합복지관 주방보조 및 정리 봉사 : 매월 첫째 화요일 11시
-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경남모임 (055-266-0170)

- **결연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밑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4시/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외부 시설 봉사활동**
- **보현행원** : 무료노인요양원으로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봉사/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 무료급식소(자비 공양의 집),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오전 10시~오후 2시
- **해뜨는 교실** : 봉림 청소년 문화의 집, 저소득층 공부방으로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5시 학습지도 및 간식 지원/초등-중등 40명 지원
 - **천연화장품 만들기 모임** : 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오후 1시 30분/사무국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 매월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문화기행** : 문화유적답사, 숲기행, 강길따라걷기/주변 환경 정화활동
 - **위안부 할머니 자원활동** : 지역 내 홀로 생활하시는 위안부 할머니 찾아뵙기 및 자원활동
 - **선 수련 모임**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열린 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월 넷째 수요일 오전 11시/사무국
- 후원 : 농협 932-01-002933
(사)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부산모임 (051-898-2672~3)

- 사회복지시설 정기 활동
 - 장애인 이동목욕활동 : 매주 수요일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 : 매주 목요일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 : 매월 1째, 3째주 화요일
 - 부산시립의료원 노인전문병원 목욕활동 : 매주 금요일
 - 용두산 공원 무료급식 : 매월 둘째 수요일, 셋째 목요일, 넷째 금요일, 다섯째 토요일
 - 해운대 사랑의 이동 밥차 무료급식 : 매월 둘째 목요일
 - 지역정화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
 - 사상구장애인복지관 : 매월 셋째 화요일
 - 부산진구 독거노인 밑반찬봉사 : 매주 수요일
 - 연화원 대청소 : 매주 목요일
 - 두송종합사회복지관 홀로어르신 밑반찬 배달 : 매주 금요일
- 불우이웃 돕기 & 나눔 활동
 - 명절, 연말 불우이웃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청소년 가장 장학금 지원 및 의료, 생계비 지원
 - 홀몸어르신 무료 건강검진
- 부산시민공원 정화활동 : 매월 23주 토요일
후원 : 우리은행 206-07-151128 / 이상오

광주모임 (062-236-3129)

- 점심공양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령,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천원의 밥상(점심) 운영/오전 9시 30분~오후 2시/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감치 담그기/ 매주 토요일 공양 나눔 센터)
- 자비의 도시락 나눔 활동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위한 도시락 나눔
- 광주모임에서는 동구 산수동에 지역 회원들의 친목과 불자들의 소통, 나눔의 공간으로 맑고 향기로운 가게 '무소유' 찻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독서모임 : 법정 스님의 저서를 매월 선정하여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매월 둘째 수요일/사무국
- 노래모임 : 건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 장학사업 : 가정환경이 어려운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3년간 학비 전액 지원
- 장터 및 바자회 운영 : 회원 및 이웃 대상으로 생필품 교환, 기증 헌 옷 판매, 농산물 직거래, 친환경제품 판매
- 쓰레기 줍기 캠페인 : 연중 회원 및 봉사자들과 주변 환경 및 사찰주변 쓰레기 줍기 캠페인 전개
- 천연화장품 만들기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천연 세숫비누, 빨래비누, 천연 화장품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길상사 소식 Tel:(02)3672-5945 / Fax:(02)3672-5947

관음재일 기도

- 일시 : 2월 2일(화)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입춘기도

- 일시 : 2월 4일(목)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다라니기도

- 일시 : 2월 6일(토) 오후 7시
- 장소 : 극락전

설 합동차례

- 일시 : 2월 8일(월)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삼천배 철야정진

- 일시 : 2월 13일(토) 오후 8시 30분 ~ 2월 14일(일) 새벽 3시 50분
- 장소 : 극락전

동안거기도 회향

- 일시 : 2월 22일(월)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춘계관음기도 입재

- 일시 : 2월 23일(화)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초하루기도 및 범회

- 일시 : 2월 8일(월)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정초기도 입재 및 회향

- 일시 : 2월 10일(수) 오전 9시 50분 ~ 2월 19일(금)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정초기도 기간 중 금강경독송기도가 오후 2시부터 극락전에서 주지스님 집전 하에 봉행됩니다.

지장재일 기도

- 일시 : 2월 25일(목) 오전 9시 50분
- 장소 : 지장전

금강경 독송 오후 기도 안내

금강경은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의경전으로서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蜜經)'이라고 합니다. 금강은 다이아몬드를 뜻하며 견고하고 날카롭다는 의미를 지녔고, 반야는 지혜를 뜻하고 바라밀은 바라밀다의 줄임말로 도피안(到彼岸), 열반을 뜻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금강경은 금강성과 같이 견고한 지혜를 얻어 무명을 타파하고 열반에 이르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길상사에서는 1월 22일(금) 오후 부터 금강경 독송 기도(한문과 한글 병행)를 봉행하오니 불자님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시간 : 오후 2시 ~ 3시 30분
- 장소 : 극락전

불교입문 32기 개강 안내

- 개강일 : 3월 9일(수)
- 시간 : 매주 수요일(총12강) <주간반> 오후 1시 40분 ~ 3시 50분 / <야간반> 저녁 7시 30분 ~ 9시 40분
- 수강료 : 7만원(교재비 포함)
- 접수기간 : 2016년 3월 6일(일)까지
- 문의 : 불교대학 02-3672-0036

3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기도

기도명/법회	날짜	시간	장소
법정스님6주기 추모법회	3월 4일	오전 9시 50분	설법전
다라니기도	3월 5일	오후 7시	극락전
삼천배 철야정진	3월 12일	오후 8시 30분 ~ 오전 3시 50분	극락전
관음재일	3월 2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초하루법회	3월 9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지장재일	3월 26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극락전기도	매 일	새벽 4시 / 오전 9시 50분 / 저녁 6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 일	새벽 4시 40분 / 오전 9시 50분 / 저녁 6시	지장전
일요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설법전
청년회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세심당
중·고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세심당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소강당
거사림 정기법회	매월 첫째·셋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설법전
문수회 정기법회	매월 셋째주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보현회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오후 1시 30분	지장전
보리회 정기회의	매월 둘째주 목요일	오전 11시	도서관
합창단 정기연습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12시	소강당
천수회 정기법회	매월 첫째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설법전
새신도 교육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소강당
보리회 정기회의	매월 둘째주 목요일	오전 11시	도서관
합창단 정기연습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12시	소강당
천수회 정기법회	매월 첫째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설법전
새신도 교육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소강당



사진·진각

오후의 입선(入禪)시간,
 선실(禪室)에서 졸다가
 대숲에 푸실푸실 싸락는 내리는 소리를 듣고
 혼침(昏沈)에서 깨어났다.
 점심공양 뒤 등 너머에서 땀나무를 한 짐 지고
 왔더니 고단했던 모양이다.
 입춘이 지나간 지 언제인데 아직도 바람 끝은 차고
 산골에는 이따금 눈발이 흩날린다.

<산방한담 : 빛과 거울 中>



2016년

'맑고 향기롭게·길상화 장학생' 추천받습니다.

시민모임「맑고 향기롭게」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16년 '맑고 향기롭게·길상화 장학생'을 추천받습니다.

「맑고 향기롭게·길상화 장학생」은 뛰어난 성적은 아니더라도 성실하고 밝은 심성을 가진 일반고 학생과 한국 과학기술영재 발굴을 위해 과학고 학생을 추천받습니다. 주변에 힘겹게 학업을 하는 학생이 있는지 돌아보시고 추천해주세요.

- 장학 대상 : 일반고, 과학고 학생 (50명 내외)
- 장학 기간 : 1년 (분기마다 각 학교 장학금 통장으로 입금됨)
- 장학 내용 : 학비 전액

※ 자세한 내용은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www.clean94.or.kr) 참조

2016년 불교대학 7기 모집

「맑고 향기롭게」근본도량 길상사에서 2016년도 제7기 불교대학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불교에 대한 심도 있고 바른 지견을 갖추고 수행의 경륜이 깊은 스님들과 재가 법사들로 이루어진 강사진이 불교 전반에 대한 명쾌한 이해와 굳건한 신심을 바탕으로 바른 수행의 길로 안내합니다.

- 학 제 : 1년 2학기제
- 일 정 : 2016년 3월 3일 개강 ~ 2017년 1월 졸업
- 입학자격 : 기본교육과정을 수료하신 불자님
- 강의시간 : 매주 목요일 (주간반/야간반)
- 문 의 : 길상사 교무실 (02)3672-0036

※ 자세한 내용은 길상사 홈페이지(www.kilsangsa.or.kr) 참조

